

● 기독교학문연구회 추계 학술대회_기독교경제학회/17-11-04 ●

<발표자료>

캘빈의 경제사회사상에 대한 일고*: 개관 및 적용 예시

17-10-23/정세열**

* 정세열(2017)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프리랜서/경제학박사

목 차

- 들어가는 말
- 왜 오늘날 종교개혁과 켈빈의 경제사회사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 켈빈의 경제사회사상의 성경적·신학적 기반: 시사점
- 켈빈의 재물관 및 경제관과 노동관 및 임금관에 대한 일고:
금욕주의에 대한 시사점
- 켈빈의 이자에 대한 관점: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
- 적용 예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반성 및 대처

들어가는 말: 우리의 현실과 종교개혁

- 한국의 오늘날 상황
 - 경이로운 성장 후 맞은 암울한 대외내적 현실
 - 국제경제환경: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맞은 금융위기(2008년 발발)에서 벗어났다고 단언하지 못하고 있음.
 - 고령화 및 인구 감소(2100년에 2000만~2500만 명으로 예측), 재정악화, 소득불균등 심화
 - 4차 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정치경제사회 변화에 직면: (예) 중산층 일자리 소멸.
- 과연 종교나 종교개혁이 오늘날 경제(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연관이 있는가?
 - 어느 시대나 정치경제사회 문제의 기저에는 도덕·윤리적 차원-경제사회정의-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
 -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규범 및 해답을 제시하고 있음.: 물론 해석이 단순하지 않음.

종교개혁(16세기 초중반) 당시의 시대적 배경

- '격변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종교: 중세 말 가톨릭교회의 부패 및 타락은 종교개혁을 필연적으로 만든 여건이 됨.
 - 그러나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의 연속성과 상호연계도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음.
- 사상: 'ad fonte'를 모토로 삼았다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의 영향이 지대했음.
- 봉건주의에서 왕정주의로 전환되는 정치·경제·사회적 체제 변혁의 시기였음. 그러나 유럽 대륙 종교개혁의 중심지인 독일과 스위스는 독립적인 도시(자치주)들이 존속함.

종교개혁(16세기 초중반) 당시의 시대적 배경 (계속)

- 유럽에서 최초로 자본주의가 드러난 시기임.
- 그러나 16세기 초중반과 과거의 단절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됨.
 - 중세, 특히 중세 말에도 여러 방면에서 점진적이고 때로는 혁신적인 기술발전이 있었음.
 - 중세 말의 경제 및 기술 발전, 그리고 16세기 이후의 근대유럽의 제도적 기틀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새로운 항로 및 신세계 발견; 은의 대량 유입과 인플레이션; 상공업의 발전의 한 계기가 되기도 함.

종교개혁의 동인:

종교개혁과 정치경제사회의 상호역학

- 종교개혁의 1차 동인은 종교적임.
 - 칼빈도 경제사회적 요인들을 종교개혁의 2차 동인이라고 함.
- 정치경제사회적 요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 종교와 정치 및 경제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음.
 - 독일의 경우
 - 영국의 성공회
 - 스위스와 제네바
- 따라서 오늘날에도 종교개혁 및 칼빈의 경제사회사상은 적용될 수 있음.

종교개혁 신앙 및 정신

- 종교개혁의 신앙(정신)의 핵심
 - 말씀을 통한 복음의 은혜의 재발견: 개인의 믿음과 경험('신비한 연합' (루터) 및 '그리스도와의 연합'(칼빈))을 강조함(칼빈의 그리스도의 연합과 관련한 관점에 대해서는 Pardee(2008)를 참조).
 -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어거스틴의 재발견
-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 라는 신앙고백(혹은 교조적인 고백)의 차원을 넘어 인격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교회 개혁을 넘어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삶은 분야에서 개혁 혹은 변혁을 지향함:
 - 학자들의 평가: Bainton, Weber, Wolterstorff 등등

종교개혁 신앙 및 정신의 적용

- 개인과 개신교회의 갱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가톨릭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됨.
 -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신교 교회가 가톨릭교회보다 낫다고 여겨질까?
-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개혁 및 갱신의 기초: '그리스도와의 연합' 및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가능
- 개인 및 교회 차원을 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신학적, 역사적 이해의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해 및 처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왜 켈빈인가?

- 켈빈에게는 과도한 비판과 엄청난 칭송이 주어짐
- 대표적인 비판: 제네바의 독재자; Servetus의 화형 등, 종교탄압에 앞장 섬; 예정론을 신봉하고 인간의 의지를 폄하한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신학자
- 그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된 것임. 그렇다고 켈빈이 인격적으로 흠이 없거나 신학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은 물론 아님.

“요약하자면, 그 동안 칼뱅은 반대자로부터는 너무 많은 비난을, 그리고 지지자들로부터는 너무 많은 찬사를 받아왔다. 그의 참된 천재성은 모든 기독교 전통의 사상 중 최상의 것을 종합하고, 그것을 엄밀한 주석적 기술과 복음주의적 본능으로 체질하며 살폈던 그의 탁월한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그의 수사학적인 원칙은 ‘간결함과 단순함’이었다. 그리고 이는 진리로 불타오르는 마음과 결합해 다양한 때와 장소에서(특히 우리가 길을 잃은 듯 보일 때) 우리를 그의 우물로 데려와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해준다.”

(호튼,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김광남 역, 아바서원, 2016), 21쪽)

왜 켈빈인가? (계속)

- 켈빈과 켈빈 이후의 켈빈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켈빈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관점이 존재함.
 - Oberman (1992, ch. XI "Calvin's Critique of Calvinism")은 5가지 사조를 구분.
- 켈빈 사후의 켈빈주의 및 개혁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켈빈(의 원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음; 종교개혁자들이 'ad fonte'의 태도를 견지한 것처럼 우리도 켈빈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앙의 본질을 좀더 잘 이해하면서도 다른 교파에 대해서도 관대한 정신(Ecumenical spirit)을 배울 수 있음.
 - 종교개혁자들 간에 이견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교류와 연합의 노력이 적지 않았음(이에 대해서는 Thomson, et al. (2017)을 참조).

왜 켈빈인가? (계속)

- 켈빈은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그 사역과 저술의 기초로 삼은 진정한 복음주의자.
 - 하나님의 주권이나 예정론도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 바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에게 참다운 순종을 위한 활력과 역동성의 한 원천이 될 수 있음.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은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며 원래 당시 켈빈의 조국인 프랑스에서 박해 받는 개신교도들을 위한 목적에서 썼음.
- 켈빈의 신관: 켈빈의 신관: 감사의 순종의 삶으로 이어짐.

“켈빈의 신관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감사다. 감사가 적절한 반응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명령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옳고 타당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행위도 감사를 드러내는 표시 중 하나다.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순종을 향한 헌신이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에게 나오는 것임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초기 칼뱅주의의 경건의 독특한 특징도 후기 칼뱅주의의 경건의 상당부분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된다.”(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홍병룡 옮김), 40~43쪽)

켈빈의 경제사회사상: 신본주의적 사회적 휴머니즘

- 왜 신본주의적·사회적 휴머니즘(인문주의)이라 할 수 있는가?(비엘레; Bieler)
 - 하나님은 인간이 사회적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심.(예: 가족, 교회, 각종 사회 조직 및 단체, 국가 등)
 -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
 - 따라서 인간이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함.
 - 하나님의 은혜에의 의존이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음. 오히려 적극적인 선한 의지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
- 인간의 사회적 연대감은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표출됨.(비엘레; Bieler)

캘빈의 재물 및 경제관

- 돈과 재물은 사랑의 동기로부터의 부의 유통(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을 통한 영적 사명을 지님.(비엘레; Bieler)
- 인간은 부패하여 재물의 사용을 통해 그 영적 사명을 달성하기보다는 돈의 노예가 되고 결국 영혼의 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재물관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앙의 척도(바로미터)임.
- 캘빈의 경제관의 핵심: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후 8:15)
- 평등지상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아님.
- 사유재산권을 인정.
 - 사유재산권은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영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켈빈의 노동관 및 안식, 그리고 임금관

- 인간의 노동은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동기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하는 것'임.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함.(비엘레; Bieler)
 -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간의 노동이 참된 노동이 되기 위해 필수적임.
- 안식의 의미: 우리 인간의 노동이 참된 노동이 되기 위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및 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하기 위한 것임.(비엘레; Bieler)
- 임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 .(비엘레; Bieler)
 -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금을 주실 의무를 갖지 않으심.

켈빈의 이자에 대한 관점

- 혁명적인 측면: '돈은 생산력이 있다'는 관점을 수용
- 구약 및 전통적 해석에서 벗어남: 현실을 반영
- 그러나 그 사상의 기반은 공동체 정신 구현과 사랑의 실천
 - 실업 해소도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
- 여전히 가난한 자를 위한 이자는 엄격히 금지함.
-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
 -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지만 과도한 이자 등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 강조

켈빈의 저축에 관한 관점

- 켈빈은 막스 베버의 해석과는 달리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을 위한 저축을 강조하지 않음. 그의 경제관의 핵심은 앞에서 소개한대로 부자로부터 가난한 자로의 부의 유통임.
 - 그렇지만 오늘날 저축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음.
 - 수명이 늘어나므로 노후에 사회와 젊은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한 저축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함.
 -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를 위한 기업가의 저축과 개인의 간접 저축은 권장해야 함
-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 및 성장은 가장 좋은 복지정책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반성 및 대처

- 구속(복음)의 은혜에 대한 재음미: 깊이 있는 신학적, 교회사적 고찰과 묵상
 -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포함한 사회적 역할 및 헌신도 구원(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및 감격이 기반이 되어야 함.

<재인용>

“칼뱅의 신관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은 감사다. 감사가 적절한 반응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명령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옳고 타당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행위도 감사를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다.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 순종을 향한 헌신이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임을 간과하지 못한다면, 초기 칼뱅주의의 경건의 특징도 후기 칼뱅주의 경건의 상당한 부분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셈이 된다.”(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40~43쪽).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반성 및 대처 (계속)

- 신앙가족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 정신 함양: 공동체 정신은 교회 정치의 기반임.
 - 오늘날 교회 정치 및 제도가 공동체 정신을 지배내지 잠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
- 정치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주의적 태도의 회개 및 관심 제고: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역사 교육 활성화
- 성경의 경제사회정의관: 약자에 대한 배려와 헌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1:27)

- 전문가 육성 및 초교회적 연대 모색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반성 및 대처 (계속)

-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서 2장 5~8절)

- 그리스도인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음.
- 그러나 자발적으로 가난(절제)의 영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검소와 절제 및 절약
-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갖는 이웃사랑
- 과도한 부채에 대한 경계: 개인적 차원(가계부채), 기업 차원(기업 및 금융부채), 정부 차원(재정적자)
- 획일적인, 율법주의적인 운동이나 훈련은 피해야 함.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반성 및 대처 (계속)

- 노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 예: 개인 및 교회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적용

- 작아 보이는 개인적 돌봄(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미혼모, 노숙자 등등)의 꾸준한 실천
- 켈빈은 제네바 사역에서 구제 및 복지 사역이 말씀 사역 못지 않은 중추를 이룸(예: 제네바 구민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장42절)

참고문헌

- 앙드레 비엘레 지음, 박성원 옮김,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정세열, 『종교개혁과 경제』(종교개혁자들과의 대화 Vol. 7), SFC 출판부, 2017(2016년 초판 수정본)
-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지음, 홍병룡 옮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IVP, 2007
- 마이클 호튼 지음, 김광남 옮김,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바서원, 2016
- Andre Biéler, *Calvin's Economic and Social Thought*, ed. By Edward Dommen, trans. by Jame Greig, Geneva: WCC Publications, 2005
- Charles Partee,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Heiko A. Oberman, *The Dawn of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Co., 1992(reprint of the 1986 ed.)
- Mark D. Thompson, Colin Bale and Edward Loane, eds., *Celebrating the Reformation: Its Legacy and Continuing Relevance*, London: IVP, 2017